

http://dx.doi.org/10.17703/JCCT.2021.7.4.543

JCCT 2021-11-66

간호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 태도, 그릿(Grit), 진로 결정 자기효능감

Perceived Parenting Attitude by Nursing Students, Grit,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이지은*

Lee Ji Eun*

요약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지각된 부모의 양육 태도, 그릿, 진로 결정 자기효능감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연구 대상은 G시에 소재하고 있는 간호대학생 195명으로 2019년 4월부터 10월까지 자료 수집을 하였다. 자료 분석은 SPSS 24.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으며, 기술통계,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아버지의 양육 태도 41.84 ± 7.55 , 어머니의 양육 태도 42.97 ± 8.74 , 그릿 103.43 ± 12.74 , 진로 결정 자기효능감 76.99 ± 10.10 으로 나타났다. 진로 결정 자기효능감은 아버지의 양육 태도($r = -.228, p < .001$), 어머니의 양육 태도($r = -.257, p < .001$)와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그러나 그릿과는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r = .584, p < .001$)가 있었다. 간호대학생의 진로 결정 자기효능감에는 그릿($\beta = .553, p < .001$)이 영향을 미쳤으며, 모형의 설명력은 35.2%로 나타났다($F = 36.070, p < .001$).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진로 결정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그릿을 높일 수 있는 전략을 이용한 지도와 교육이 필요하다.

주요어 : 간호대학생, 부모의 양육태도, 그릿,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Abstract This study is a descriptive investigative research study to understand the relationship between perceived parental parenting attitude, grit, and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of nursing students. The subjects of the study were 195 nursing students located in G city, data were collected from April to October 2019. The data analysis used the SPSS 24.0 program and descriptive statistics, correlation,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ere conducted. As a result of the study, the father's parenting attitude was 41.84 ± 7.55 points, the mother's parenting attitude was 42.97 ± 8.74 points, grit was 103.43 ± 12.74 points, and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was 76.99 ± 10 points.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was a significant negative correlation with the father's parenting attitude ($r = -.228, p < .001$), Mother's parenting attitude ($r = -.257, p < .001$). However, There was a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with grit ($r = .584, p < .001$). The major factors that affect the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were grit ($\beta = .553, p < .001$), and It's explanatory power was 35.2%. Therefore, in order to improve the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of nursing students, guidance and education using a strategy to increase grit is necessary.

Key words : Nursing Students, Parenting Attitude, Grit, Career Decision Making Self-Efficacy

*정회원, 광주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제1저자)
접수일: 2021년 10월 22일, 수정완료일: 2021년 10월 30일
게재확정일: 2021년 11월 4일

Received: October 22, 2021 / Revised: October 30, 2021

Accepted: November 4, 2021

*Corresponding Author: jelee@gwangju.ac.kr

Dept. of Nursing, Gwangju Univ, Korea

1.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청년기는 자신의 진로를 결정하고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시기이다. 청소년기에는 자신의 적성과 흥미에 적합한 학과를 선택하고, 대학생이 되어서는 앞으로의 직업 선택을 위한 진로를 결정해야 한다. 즉, 성인 초기에 해당되는 대학 시절은 진로를 통해서 자신의 적성과 흥미에 맞는 직업을 결정하고 자아실현을 하게 하는 중요한 시기이다[1].

그러나 최근 취업난으로 인해 자신의 적성과 흥미, 가치관 등을 고려해서 학과를 선택하기보다는 졸업 후 취업 전망에 따라 대학에 입학하는 경우가 많다[2]. 특히 진로 선택에 충분한 고민 없이 전문직이고, 취업의 안정성을 이유로 간호학과를 지망하는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이러한 실정으로 본인의 적성과 맞지 않아 대학 생활 적응을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3]. 간호대학생들은 재학 중에 다양한 교과, 비교과 활동을 포함한 강도 높은 교육과정으로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 그리고 임상 실습 과정을 통해 간호사의 역할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됨으로써 자신의 적성과 맞는지에 대해 다시 한번 고민하게 된다[4, 5]. 일반 대학생들은 대학 시절 내내 앞으로의 진로와 취업 방향에 대해 고민하고 있지만 간호대학생의 경우 타 전공 학생들에 비해 진로가 뚜렷하고 취업률이 높아 비교적 안정된 대학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2008년부터 시작된 급격한 간호대학 정원 증가는 간호대 취업률을 하락시키고 있어 앞으로는 간호학과 취업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없게 되었다[6]. 따라서 상대적으로 취업이 용이하다고 여겨지던 과거와 달리 현재의 간호대학생들은 취업을 위해 학점 관리 뿐만 아니라 다양한 스펙을 쌓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며, 취업 준비와 함께 간호사 국가고시까지 준비해야 하므로 많은 부담감에 시달리고 있다[7]. 이러한 과정은 결국 간호대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에 대한 깊은 고찰이 부족하게 되며[8], 간호학에 대한 흥미를 잃고 간호직 진로 결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9].

특히 간호대학생의 대부분은 대학 생활 동안 본인의 진로에 대한 뚜렷한 목표 없이 취업 준비를 하게 되고, 졸업 후 우선적으로 병원에 취업을 하다 보니 본인의 생각과 다른 간호사라는 직업에 적응을 하지 못하고 직장

조기 이탈이 이어지게 된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신규간호사 이직률은 간호사 평균 이직률의 2배 가까이로 보고되고 있다[10]. 결국 자신의 진로에 대해 뒤늦은 고민과 방황을 하게 되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간호대학생들은 재학 중에 자신의 진로에 대해 고민해야 보아야 하며, 본인 스스로가 능동적으로 진로를 탐색하고 결정해야 한다[11].

이러한 상황 속에서 간호대학생들의 진로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타인에 의한 적절한 진로지도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그들에게 중요한 타인은 가장 지속적이고 강한 영향을 미치는 부모이며, 부모의 양육 태도가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은 오랜 기간 강조되어왔다. 부모의 양육 태도는 자녀의 전반적인 형성에 영향을 주게 되며, 자녀가 성인이 된 이후에도 영향을 끼치게 된다. 즉, 성인 초기인 대학생 시기의 자녀에게 어린 시절 부모의 양육 태도는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되며[12], 대학생들의 진로 결정에도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다.

진로 결정에 있어서 진로 결정 자기효능감이란 자신이 진로와 관련된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최선의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믿음을 말하며, 자신의 직업관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13, 14]. 진로 결정 자기효능감은 진로나 직업과 관련하여 어떻게 느끼고 사고하고 행동하는지에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진로 선택과 계획 활동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된다[15]. 따라서 대학생들의 진로지도에 있어서 진로 결정 자기효능감은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

그렇든 어떤 관심사에 변치 않는 열정을 가지고 장기적인 목표를 추구함에 있어 꾸준히 노력하는 끈기와 열정을 의미한다[16]. 선행연구에 따르면 그릿이 높을수록 대학생들이 학업을 쉽게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인 노력으로 이어갔으며[17], 그릿이 학업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보고되었다[18]. 간호대학생의 경우 생명을 다루는 학문을 접하면서 그에 따른 부담감을 느끼고 있으며, 이론 공부와 임상 실습을 병행하고 국가고시를 준비해야 한다는 과중함, 그리고 진로 결정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7]. 또한 대학을 갓 졸업한 신규간호사들이 졸업 후 실무에 대한 기대와 현실과의 갈등으로 인한 적응의 어려움, 잦은 이직 등이 문제가 되면서 끈기와 지구력, 즉 그릿이 핵심 간호역량으로 여겨지고 있다[19]. 따라서 간호대학생들이 졸업 후 간호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핵심역량을 갖추고 적성과 흥미에

맞는 진로를 결정하기 위해 그것은 매우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

이에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지각된 부모의 양육 태도와 그것, 진로 결정 자기효능감 정도를 파악하고, 진로 결정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여 간호대학생의 올바른 진로 결정 확립을 위해 체계적인 지도 교육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대학생이 지각하는 부모의 양육 태도, 그것,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정도를 파악하고, 진로 결정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목적은 첫째, 간호대학생의 일반적인 특성을 파악한다. 둘째, 간호대학생이 지각하는 부모의 양육 태도와 그것, 진로 결정 자기효능감 정도를 파악한다. 셋째, 간호대학생이 지각하는 부모의 양육 태도와 그것, 진로 결정 자기효능감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넷째, 간호대학생들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 그것이 진로 결정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다.

II.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지각된 부모의 양육태도, 그것, 진로 결정 자기효능감 정도를 파악하고 진로 결정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 대상자는 2019년 4월부터 10월까지 G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간호대학생 200명을 편의 추출하였다. 자료수집은 설문지를 배부하기 전 연구자가 대상자에게 설문지 내용과 연구목적, 설문지 기재요령을 설명한 후, 연구 목적을 이해하고 참여에 서면 동의한 대상자 200명에게 설문지를 배부하여 조사하였다. 본 연구에서 배부된 설문지는 200부였으나, 그중 응답이 불충분한 설문지 5부를 제외한 총 195부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또한 연구 대상자의 익명성과 비밀 보장을 약속하고, 원하지 않을 경우 언제라도 중도 철회할 수 있으며, 연구 결과가 연구목적 이외에 사용되지 않을 것임을 설명한 후 동의를 받아 진행하였다. 설문지 작성의

소요 시간은 약 10분이었다. 또한 설문에 응답한 대상자에게는 소정의 답례품을 제공하였으며, 회수한 설문지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코드화하여 분석하였다.

3. 연구도구

1) 지각된 부모의 양육 태도

대학생들의 지각된 부모의 양육 태도를 측정하기 위해 스웨덴에서 제작한 ‘양육에 대한 나의 기억’ 도구를 조한익(2011)이 번안한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20]. 이 척도는 총 23문항이며 애정 8문항, 거부 7문항, 과보호 8문항이며 3가지 하위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거의 드물게(1점)’에서 ‘대부분(4점)’까지의 4점 Likert 척도이다. 도구는 점수의 합이 높을수록 거부적이고, 과보호적이며, 애정적이지 않은 양육을 받음을 의미하며, 본 연구의 Cronbach's $\alpha = .81$ 이었다.

2) 그것

그것은 Duckworth와 동료들(2007)이 개발한 Original Grit Scale(Grit-O)을 이인숙 외(2018)이 한국 실정에 맞게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였다[21]. 이 척도는 총 26문항이며 인정받을 인식 6문항, 중요성 인식 6문항, 의미 부여 5문항, 자기동기부여 4문항, 흥미 유지 5문항이며 5가지 하위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아니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의 5점 Likert 척도이다. 도구는 점수의 합이 높을수록 그것이 높은 것을 의미하며, 본 연구의 Cronbach's $\alpha = .93$ 이었다.

3) 진로 결정 자기효능감

본 연구에서 사용된 진로 결정 자기효능감 척도는 Betz와 Voyten(1997)가 개발한 진로 결정 자기효능감 단축형 척도를 이기학과 이학주(2000)가 번안하여 사용한 척도를 사용하였다[22]. 이 척도는 총 25문항이며 목표선택 5문항, 직업정보 5문항, 미래계획 5문항, 문제해결 5문항, 자기평가 5문항이며 5가지 하위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4점)’까지의 4점 Likert 척도이다. 도구는 점수의 합이 높을수록 진로 결정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나타내는 것을 의미하며, 본 연구의 Cronbach's $\alpha = .93$ 이었다.

4.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24.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간호대학생의 지각된 부모의 양육 태도, 그릿, 진로 결정 자기효능감 정도는 평균과 표준편차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간호대학생의 부모의 양육 태도, 그릿, 진로 결정 자기효능감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다. 간호대학생의 진로 결정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요인은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III. 연구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본 연구 대상자는 여학생 155명(79.5%), 남학생(40명(20.5%))이었고, 학년은 '2학년' 94명(48.2%), '4학년' 101명(51.8%)이었다. 거주 형태는 '부모님과 함께 거주' 99명(50.8%), '자취' 44명(22.6%), '기숙사' 47명(24.1%)이었다. 간호학 전공 선택 이유는 '취업이 잘되어서'가 78명(40.0%)로 가장 많았으며, '간호사가 되는 것이 꿈이어서' 56명(28.7%), '부모님, 선생님 등 지인의 권유' 49명(25.1%), '고등학교 성적을 고려해서' 10명(5.1%) 순으로 나타났다. 학교생활 만족도는 '보통'이 119명(61.0%)로 가장 많았으며, '만족' 64명(32.8%), '불만족' 12명(6.2%) 순으로 나타났다(Table 1).

표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N=195)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성별	여성	155	79.5
	남성	40	20.5
학년	2학년	94	48.2
	4학년	101	51.8
간호학 전공 선택 이유	부모님 및 선생님 등 지인의 권유	49	25.1
	간호사가 되는 것이 꿈이어서	56	28.7
	취업이 잘되어서	78	40.0
	고교성적	10	5.1
	기타	2	1.0
학교 생활 만족도	만족	64	32.8
	보통	119	61.0
	불만족	12	6.2
거주 형태	부모와 함께 거주	99	50.8
	자취	44	22.6
	기숙사	47	24.1
	기타	5	2.6

2. 대상자의 지각된 부모의 양육 태도, 그릿, 진로 결정 자기효능감

대상자가 지각한 아버지의 양육 태도는 41.84±7.55점으로 나타났으며, 하위 요인별로는 애정 17.78±3.69점, 거부 9.52±3.29점, 과보호 12.93±3.72점이었다. 어머니의 양육 태도는 42.97±8.74점으로 나타났으며, 하위 요인별로는 애정 17.14±3.47점, 거부 1.54±3.50점, 과보호 13.76±4.48점이었다. 그릿은 103.43±12.74점으로 나타났으며, 하위 요인별로는 인정받음 24.38±3.26점, 중요성인식 25.45±3.05점, 의미부여 19.45±3.07점, 자기동기부여 15.05±2.64점, 흥미 유지 19.10±3.48점이었다. 진로 결정 자기효능감은 76.99±10.10점으로 나타났으며, 하위 요인별로는 목표 선택 15.39±2.29점, 직업정보 15.50±2.14점, 미래계획 15.41±2.47점, 문제해결 15.06±2.47점, 자기평가가 15.63±2.10점이었다.(Table 2).

표 2. 대상자의 지각된 부모의 양육 태도, 그릿, 진로 결정 자기효능감

Table 2. Perceived Parenting Attitude, Grit, Career Decision Making Self-Efficacy of the Subjects(N=195)

Variables	Categories	Mean±SD	Min	Max
아버지의 양육 태도	애정	17.78±3.69	11.00	26.00
	거부	9.52±3.29	7.00	24.00
	과보호	12.93±3.72	7.00	23.00
	전체	41.84±7.55	30.00	64.00
어머니의 양육 태도	애정	17.14±3.47	11.00	26.00
	거부	1.54±3.50	1.921	23.00
	과보호	13.76±4.48	7.00	48.00
	전체	42.97±8.74	29.00	83.00
그릿	인정받음	24.38±3.26	14.00	30.00
	중요성인식	25.45±3.05	17.00	30.00
	의미부여	19.45±3.07	12.00	25.00
	자기동기부여	15.05±2.64	8.00	20.00
	흥미유지	19.10±3.48	9.00	25.00
전체	103.43±12.74	65.00	130.00	
진로 결정 자기효능감	목표선택	15.39±2.29	7.00	20.00
	직업정보	15.50±2.14	9.00	21.00
	미래계획	15.41±2.47	6.00	20.00
	문제해결	15.06±2.47	8.00	20.00
	자기평가	15.63±2.10	10.00	20.00
	전체	76.99±10.10	48.00	100.00

3. 대상자의 진로 결정 자기효능감과 관련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본 연구 대상자의 진로 결정 자기효능감은 아버지의 양육 태도와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가 있었고($r=-.228$,

$p < .001$), 어머니의 양육 태도와도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가 있었다($r = -.257, p < .001$). 그러나 그릿과는 강한 양의 상관관계($r = .584, p < .001$)가 있었다. 즉, 부모의 양육 태도가 부정적일수록 자녀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낮아지고, 그릿이 높을수록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그릿은 아버지의 양육 태도($r = -.208, p < .001$), 어머니의 양육태도($r = -.201, p < .001$)와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즉, 부모의 양육태도가 부정적일수록 그릿은 낮아짐을 알 수 있었다 (Table 3).

표 3. 지각된 부모의 양육 태도, 그릿, 진로 결정 자기효능감의 상관관계
 Table 3. Correlation between Perceived Parenting Attitude, Grit, Career Decision Making Self-Efficacy(N=195)

Variables	아버지의 양육 태도	어머니의 양육 태도	그릿	진로 결정 자기효능감
	r(p)			
아버지의 양육 태도	1			
어머니의 양육 태도	.711 (<.001)	1		
그릿	-.208 (<.001)	-.201 (<.001)	1	
진로 결정 자기효능감	-.228 (<.001)	-.257 (<.000)	.584 (<.001)	1

4. 대상자의 진로 결정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간호대학생의 진로 결정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아버지의 양육 태도, 어머니의 양육 태도, 그릿을 독립변수로 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중회귀분석 실시 전 다중 공선성을 검정한 결과 공차 한계는 .491~.951로 0.1 이상으로 나타났다으며, 분산팽창인자(Variance Inflation Factor, VIF)는 1.051~2.038로 10 이하의 값을 나타내어 다중 공선성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잔차의 독립성

을 검정한 결과 Durbin-Watson 통계량이 2.007로 자기 상관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F = 36.070, p < .001$).

간호대학생의 진로 결정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그릿($\beta = .553, p < .001$)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들 요인은 간호대학생의 진로 결정 자기효능감에 대해 35.2%의 설명력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Table 4).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지각된 부모의 양육태도, 그릿, 진로 결정 자기효능감 정도를 파악하고, 진로 결정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 대상자들이 간호학과를 선택한 이유는 '취업이 잘되어서'가 78명(40.0%)로 가장 많았으며, 즉, 전공에 대한 자신의 목표나 적성을 고려하여 학과를 선택하기보다는 취업이 잘되어서 간호학과를 선택한 학생이 가장 많았으며, 그에 따라 대부분의 학생들이 학교생활에 있어서 보통 정도로 만족하고 있었다. 학교생활 만족도는 '보통이다'라고 응답한 학생이 119명(61.0%)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자신의 적성과 흥미를 고려하여 간호학과를 선택한 학생이 고등학교 성적에 따라 학과를 선택한 학생보다 전공에 대한 만족도가 더 높았다[1]. 이는 대학생들이 학과나 학교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자신의 적성과 흥미를 고려하여 학과를 선택한 학생들은 학과 및 학교생활에 대해 기대를 하게 되고, 학과 또는 학교생활 적응을 위해서도 더 많은 노력을 함으로써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간호학과 입학 후 학과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과 적응 및 전공에 대한 흥미를 갖게 함으로써 학과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진로지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용하는 학과 차원에서의 노력이 필요하다.

표 4. 진로 결정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Table 4. The Factors Affecting Career Decision Making Self-Efficacy(N=195)

Variables	B	SE	β	t	p	R ²	F	p
(Constant)	39.267	6.555		5.990	<.001			
아버지의 양육 태도	-.026	.110	-.020	-.238	.812	.352	36.070	<.001
어머니의 양육 태도	-.152	.095	-.132	-1.601	.111			
그릿	.439	.047	.553	9.336	<.001			

또한 본 연구 대상자인 간호대학생이 지각하는 아버지의 양육 태도는 41.84 ± 7.55 점으로 나타났으며, 하위 요인별로는 애정 17.78 ± 3.69 점, 거부 9.52 ± 3.29 점, 과보호 12.93 ± 3.72 점이었다. 어머니의 양육 태도는 42.97 ± 8.74 점으로 나타났으며, 하위 요인별로는 애정 17.14 ± 3.47 점, 거부 1.54 ± 3.50 점, 과보호 13.76 ± 4.48 점이었다. 이는 대상자들이 지각하는 부모의 양육 태도 중 거부적인 양육 태도를 가장 낮게 지각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동일한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된 선행연구에서도 대상자들이 부모의 양육 태도 중 거부적인 양육 태도를 가장 낮게 지각한다고 보고된 결과[23]와 동일한 결과를 보여주었음을 알 수 있었다. 즉, 대상자들이 자신의 부모에 대한 양육 태도를 긍정적으로 지각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대학생은 이전 시기에 비해 부모의 영향을 덜 받는 시기이기는 하지만 부모의 양육 태도는 자녀와의 관계에 있어서 많은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12]. 그리고 부모가 애정적이고 긍정적인 양육 태도일수록 대학생들의 학교생활 적응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 선행연구 결과[24]에 따르면 본 연구 대상자들의 경우에도 부모의 양육 태도가 그릿과 진로 결정 자기효능감에 중요한 역할을 미칠 수 있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었다.

대상자들의 그릿은 103.43 ± 12.74 점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국군간호사관생도들의 그릿 평균 점수와 비슷한 수준의 결과를 보여주었다[21]. 본 연구에서는 간호대학생들의 그릿 정도를 측정 도구에 따라 5가지 하위 요인으로 나누어 분석해 보았다. 보다 면밀한 비교를 위해서는 동일한 도구를 사용하여 다양한 표본을 대상으로 측정하는 반복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그릿은 다양한 분야의 성취 도달을 위하여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고, 목표 달성을 위한 지속성과 열정을 보여주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중요한 요인[16]이므로 간호대학생들의 진로 및 취업 결정과 신규간호사가 되었을 때 적응력을 높일 수 있는 그릿 향상 중재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연구 결과 대상자들의 진로 결정 자기효능감은 76.99 ± 10.10 점으로 나타났으며, 하위 요인별로는 목표선택 15.39 ± 2.29 점, 직업정보 15.50 ± 2.14 점, 미래계획 15.41 ± 2.47 점, 문제해결 15.06 ± 2.47 점, 자기평가 15.63 ± 2.10 점이었다. 이는 국내 연구에서 동일한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된 대학생들의 진로 결정 자기효능감 점수 보다[25] 본 연구 대상자들의 진로 결정 자기효능감 정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선행연구에서는 다양한 전공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하였지만, 본 연구에서는 연구 대상자를 간호대학생으로 한정된 결과로 여겨진다. 즉, 간호대학생들의 진로 결정 자기효능감이 타 전공 학생들에 비해 더 높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하위 요인 중 문제해결이 본 연구와 선행연구에서 동일하게 가장 낮게 나타났다. 따라서 대학생들의 문제해결 능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요구된다.

본 연구 대상자의 부모의 양육 태도, 그릿, 진로 결정 자기효능감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부모의 양육 태도가 부정적일수록 자녀의 진로 결정 자기효능감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대상은 다르지만 부모의 양육 태도가 애정 차원에서 진로 결정 자기효능감과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었다. 즉, 애정적이고 자율적인 부모의 긍정적인 태도는 진로 결정에 있어서 자기효능감을 높여준다는 것이다[26]. 이러한 선행연구 결과는 본 연구 결과와 일맥상통하다고 볼 수 있다. 이에 자녀들의 진로 결정에 있어서 자기효능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부모들의 긍정적인 양육 태도가 필수적이라 생각할 수 있으며, 긍정적인 자녀 양육 태도를 위한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적용이 필요하다.

그리고 대상자들의 그릿이 높을수록 진로 결정 자기효능감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그릿과 진로 결정 자기효능감의 상관관계에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며, 그릿이 진로 결정 자기효능감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선행연구 결과[27]와 동일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또한 본 연구 결과 진로 결정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그릿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대학생들의 그릿 수준을 높여주는 전략이 학생들의 진로를 결정하는 교육에 있어서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된다. 이를 위해서는 가정이나 학교에서 학생들이 그들의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지원해주어야 할 것이다. 또한 그릿의 수준이 높을수록 이직 의도가 낮아진다는 선행 연구[28] 결과에 따라 간호대학생들이 졸업 후 신규간호사가 되어 적응의 어려움을 겪고 고민할 때 그릿의 수준이 높을수록 끈기있게 노력하여 적응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간호대학생들의 목표 달성을 위한 단계에서 그들이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끈기를 가지고 노력할 수 있도록 지속성과 끈기에 초점을 둔 피드백 제공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그릿은 부모의 양육 태도와 유의한 음

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그것이 부모의 긍정적 양육 태도와는 양의 상관관계를, 부정적 양육 태도와는 음의 상관관계를 보여주었으며[29], 또 다른 연구에서도 가정에서의 엄격한 규칙과 지시적 분위기가 대상자들의 그것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30]. 이는 본 연구 결과가 선행연구 결과들을 지지하고 있으며, 부모의 양육 태도가 부정적일수록 그것은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를 토대로 선행연구에서 제안한 부모의 양육 태도와 그것의 과정을 밝히는 후속연구가 추가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간호대학생의 올바른 진로 결정 확립을 위한 체계적인 지도 및 교육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첫째, 부모님들의 긍정적인 양육 태도에 대한 이해를 높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부모들의 긍정적인 양육 태도 확립을 위한 부모교육이 필요하다. 둘째, 간호대학생들이 진로 결정과 취업, 그리고 미래 신규간호사가 되어 어려운 상황을 겪게 되었을 때 이를 극복하고 노력할 수 있는 그것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또한 가정과 학교에서 대학생들의 그것을 높여줄 수 있는 전략을 적용한 지도와 교육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몇 가지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이를 통해 제안하고자 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일개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여 일반화에 한계가 있으므로 다양한 지역으로 대상자를 확대한 반복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간호대학생들의 그것에 대한 면밀한 비교를 위해서는 동일한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된 반복 연구를 제안한다.

References

[1] Jung, JS, Jeong, MJ, Yoo, IY. Relations between Satisfaction in Major,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nd Career Identity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014;20(1):27-36. DOI: <http://dx.doi.org/10.5977/jkasne.2014.20.1.27>

[2] Kim N. Patterns of career choice and career identity of students in nursing. Unpublished Master's thesis, A-ju University, Seoul. 2012.

[3] Kim EA, Jang KS. Developing a prediction model regarding adjustment of nursing students to college life.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012;18(2):312-22.

DOI: <https://doi.org/10.5977/jkasne.2012.18.2.312>

[4] Cho H, Lee GY. Self esteem and career identity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Public Health Nursing*. 2006;20(2):163-73.

[5] Moon IO, Lee GW. The effect of satisfaction in major and career search efficacy on career search behavior in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010;16(1):83-91. DOI: <https://doi.org/10.5977/jkasne.2010.16.1.083>

[6] Kim J, editor The demand and supply of registered nurse in Korea. Invited lecture presented at the 2013 Annual Spring Meeting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Seoul, Korea; 2013.

[7] Kim JA. Living as a nursing college students in Korea. *International Journal of Advanced Culture Technology(IJACT)*. 2016;4(3):20-23. DOI: <http://dx.doi.org/10.17703/IJACT.2016.4.3.20>

[8] Kim MA, Lim JY, Kim S, Kim E, Lee J, Ko Y. Influencing factors on nursing students' career attitude maturity.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2004;13(4):383-91.

[9] Jeong MH, Shin MA.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esteem and satisfaction in major of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006;12(2):170-7.

[10] Kim BH, Chung BY, Kim JK, Lee Ay, Hwang SY, Cho JA, et al. Current situation and the forecast of the supply and demand of the nursing workforce in Korea. *Journal of Adult Nursing*. 2013;25(6):701-11.

[11] Lee KA, Kim JH. Nursing Students' Awareness of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Career Search Behavior and Commitment to Career Choice. *Perspectives in Nursing Science*. 2015;12(1): 42-49 DOI: <https://doi.org/10.16952/pns.2015.12.1.142>

[12] Lee HS, Cho HI. The Effect of Parents' Child-Rearing Attitude on Achievement Goal and Career Decision - Research on College students.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2004;16(1):89-105.

[13] Choi EH.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areer identity and clinical competency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009;15(1):15-21.

[14] Jeong Y, Kang H, Kim J. Employment preparation, work value, career decision making self-efficacy and career development readiness among university students. *Social Research*.

- 2011;22(1):71-88.
- [15]Bandura A. Self-efficacy: toward a unifying theory of behavioral change. *Psychological review*. 1977;84(2):191.
- [16]Duckworth AL, Peterson C, Matthews MD, Kelly DR. Grit: perseverance and passion for long-term goal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2007;92(6):1087.
- [17]Ha HS, Lim HJ, Hwang MH. The Role of Grit, Goal Perception, Conscientiousness and Resilience in Academic Adjustmen. *Journal of Counseling*. 2017;18(1):371-88. DOI: <https://doi.org/10.15703/kjc.18.1.201702.371>
- [18]Cho NK, Kwon JH, Jung MY. The Structural Relationship among Autonomy, Mindset and Academic Persistence Intention with Grit.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2017;24(12):45-69. DOI: <https://doi.org/10.21509/kjys.2017.12.24.12.45>
- [19]Lee Sk, Park SN, Jeong SH. Nursing core competencies needed in the fields of nursing practice for graduates in nursing.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2012;18(4):460-73. DOI: <https://doi.org/10.11111/jkana.2012.18.4.460>
- [20]Jo HI. The Effect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Perceived Parenting Attitude and Internet Use Motives on Internet Addiction: Self-Control as a Mediator. *Journal of Adolescent Welfare*. 2011;13(4):269-87.
- [21]Lee IS, Joe SY, Kwon OY, Song J. Measuring Grit of Korea Armed Forces Nursing Academy Cadets. *Journal of Military Nursing Research*. 2018;36(1):35-47. DOI: <https://doi.org/10.31148/kjmnr.2018.36.1.35>
- [22]Lee KH, Lee HJ. The Effects of Career Self Efficacy in Predicting the Level of Career Attitude Maturity of College Students.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2000;12(1):127-36.
- [23]Ryu HS, Kim JY. The Effects of Perceived Parenting Style and Grit on Nursing Student's Psychological Well-being. *Jornal of Korea Entertainment Industry Association*. 2019;13(2): 261-9. DOI: <https://doi.org/10.21184/jkeia.2019.2.13.2.261>
- [24]Kwon JH, Lee SJ. The effects of parents' rearing attitudes on self-control and the school adjustment of college students : The mediating effects of self-control. *Studies on Korean Youth*. 2013;24(2):35-62.
- [25]Park SH. The Influences of Perceived Career Barriers, Career Decision Making Self-Efficacy, and Career Decision-Making Types on Career Decision Level of University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Dong-A University. Busan. 2013.
- [26]Lee DY, Kim JT. Relationship among Child-rearing Attitude of Parents, Career Self-efficacy and Career Decision-making of High School Baseball Players. *Journal of Sport and Leisure Studies*. 2014;56(1):685-95. DOI: <https://doi.org/10.51979/ks sls.2014.05.56.685>
- [27]Kang MH, Toon SH, Kim DH, Ryoo DH. The Relationship among Career Preparation Behaviors, Grit,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Outcome Expectation, and Major Interest of Natural Science College Students. *Journal of Vocational Education Research*. 2016;35(4):109-29.
- [28]Jang DH, Kim SR. The Effects of Early Childhood Teachers' Job Stress and Grit on Their. Turnover Intention.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JCCT)*. 2019;5(1):177-183. DOI: <https://dx.doi.org/10.17703/JCCT.2019.5.1.177>
- [29]Kim JE, Lee SR, Yang SJ. A study of the characteristic of Korean grit: Examining multidimensional clustering of grit. *Korean Journal of Culture and Social Issues*. 2018;24(2):131-51. DOI: <https://doi.org/10.20406/kjcs.2018.5.24.2.131>
- [30]Kim M, Lee S, Baek S, Choi Y. The environmental factors affecting students' grit scores and their differences across sex and grade.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2015;15(5):297-322.

※ 본 논문은 2021학년도 광주대학교의 학술 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